

# 노후 경제적 대비 여부에 따른 가계 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Differences in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Financial Behavior between  
Household Conducting and Not-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 수 양 세 정\*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부 교수 이 성 립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

Professor : Yang, Se-Jeong

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Associate Professor : Lee, Seonglim

---

## <Abstract>

Using the 2007 Fund Investors Survey, we investigated (1) the differences in economic status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saving, assets and debts, (2)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3) and the differences in confidence in economic status after retirement between households conducting and not-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major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nly 46.4% of the households were financially preparing for retirement. The levels of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were higher among households 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an among those not-conducting such financial preparation. Second, households 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had a relatively high propensity to save. Their financial asset portfolio had a higher weight in safety assets and investment assets than in retirement assets. Due to their lack of confidence in their economic status after retirement, their demand for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remained. Third, the households which did not conduct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ended to have a relatively heavy debt burden and not to implement general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Fourth, among the three-pillar retirement income system, the second pillar,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was not well established.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주요어(Key Words) : 노후 경제적 대비(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가계 자산과 부채(household assets and debts), 가계 소득과 소비, 저축(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은퇴후 경제적 자신감(confidence in economic status after retirement)

---

\* 이 논문은 2007년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양세정 (E-mail : sjyang@sjyang.ac.kr)

## I.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학의 발달과 함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적게 출산함으로써 저연령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남에 반해 점차 팽배해지는 가계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자녀에 의한 노부모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은퇴자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생활수준의 노후의 삶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한 집단 내에서 노령인구 비중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경제활동인구집단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곧 노령층의 기초적 생계대책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의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일부 가계들은 생애주기 전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은퇴에 임박한 시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노후 대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노인소비자들이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면, 소득창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강유지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위한 지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노인계층을 부양하기 위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높은 인구구성을 차지하는 노인계층의 낮은 구매력은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노후대비에 관한 관심은 활발한 관련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차경옥 등, 2008; 박인숙 등, 2007 외), 일부 연구에서는 노후대비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여윤경, 2007; 여윤경 등, 2007). 삼성경제연구소(2007)는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주된 노후대비 수단을 알아보았으며, 차경옥 등(2008)와 여윤경 등(2007)의 연구 또한 노후대비 수단을 조사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노후대비여부와 이에 따른 자산 현황과 은퇴 준비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거의 모든 관련 선행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고, 노후대비에 관한 세부적 이슈를 다룸으로써 정작 관련한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경제연구소나 금융기관들에게 간헐적으로 행해진 노후대비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들은 노후대비여부와 노후대비수단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현황파악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가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가계의 주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노후의 준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주관적으로 노후대비를 한다고 평가할 경우는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경우에 비해 실제 재무관리 행동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자산 축적 상태에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노후를 대비하거나 혹은 대비하지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대비 여부의 차이에 따라 객관적인 자금 보유 상태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노후 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후의 경제 상태에 대한 자신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노후 대비 여부별로 재무관리 행동과 재무상담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얼마나 많은 가계가 노후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가계가 노후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 가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재무관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자료는 개별가계 또는 개별 소비자에게 노후경제적 대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재무설계를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 개발에도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비은퇴자의 노후 대비에 관한 연구는 비은퇴자들이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노후대비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노후 대비 방법으로 어떠한 자산관리수단을 사용하는가를 파악하는 연구,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였는지 에 관한 노후대비 자산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연구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2007년 20~30대 임금근로자 약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경옥 등(2008)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자의 약 50%는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대보다는 30대에서, 기혼자, 전문관리직 종사자, 자가 보유자가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은퇴연령이 낮을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수록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은퇴에 대한 태도가 은퇴 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홍성희와 박인숙(2007)에 의해서도 분석되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봉급생활자 7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한 이 연구에서 은퇴준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적인 은퇴태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퇴 준비 여부에 따라서 노후의 경제적 자신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은퇴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반대 방향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약 69.5%는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로서 Joo와 Pauwels(2002)은 1999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자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은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젊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재무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이고, 위험회피도가 낮을수록, 재무교육을 받은 경우에 저축을 하거나 은퇴 자신감이 높았다. 이후에 Kim과 Kwan(2005)은 2004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요은퇴자금을 계산하고, 저축을 많이 할수록, 공적 연금 등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고, 직장에서 재무교육과 조언을 받은 경우 은퇴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meriks 등(2003)은 재무설계에 접근하는 가계의 태도와 기술이 가계의 자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가계의 계획성향(propensity to plan)을 측정하여 고찰한 결과 계획성향이 높으면 재무계획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계획으로 옮겨가게 되며, 지출을 보다 잘 통제하고 자산축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Bernstein(2004)과 James III와 Sharpe(2007)은 은퇴 저축과 다른 자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Bernstein(2004)은 가계부채와 개인기업연금(IRA) 보유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신용부채나 소비자대출 가계는 부동산 대출 가계에 비해 IRA를 보유할 가능성이 낮고, IRA를 보유할 경우 이에 대한 재무 목표상의 우선순위가 낮았다. James III와 Sharpe(2007)에서 주거 임차자는 주거소유자에 비해 은퇴 저축을 할 가능성이 낮고, 저축을 한 경우에도 투자 금액이 보다 낮으며, 단기 투자를 선호하였다.

노후 대비를 하는 경우 어떠한 자산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자산선택과 금융 수단 선택의 문제로서 이러한 연구는 자산시장의 가계 수요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노후의 소득 및 자산규모를 예측하는데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가장 주된 노후 대비 수단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보험, 은행예금 및 적금 순으로 나타났다. 차경욱 등(2008)와 여운경 등(2007)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노후 대비 경제 수단을 조사하였는데, 차경욱 등(2008)에서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생명보험 순으로 나타났고, 여운경 등(2007)에서는 예금 및 저축, 부동산, 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분석대상 가계가 다르고, 각기 시점에 조사한 다른 표본을 사용함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는 전국 주택전화 가입자 가운데 지역과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1000가구를 추출하여 전화조사한 결과이고,

차경욱 등(2008)은 2007년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 근로자 22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이며, 여운경 등(2007)은 2005년 20-50대 은퇴 이전 취업 가구주 부부가계 약 269 가구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성숙(2008)은 가입연금구조에 따라 노후대비 방법을 유형화하고, 특히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05년에 조사한 1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은퇴하지 않은 50세 이상 가구원 표본을 사용하였다. 연금가입 유형은 공적연금만 가입한 유형 15.2%,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보유한 유형 22.8%,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세 가지를 모두 보유한 유형 6.9%, 퇴직금만 보유한 유형 6.0%, 개인연금만 보유한 유형 5.8%, 어떠한 연금도 보유하지 않은 유형 43.3%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개인연금 가입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축성보험을 불입하거나 금융자산 총액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예적금과 개인연금 사이에 대체관계가, 저축성보험과는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Poter 등(2006)에서는 임금근로자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401K 자산 배분 전략이 은퇴자산의 기대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401K 자산 배분의 기대 효용은 주식의 기대수익률, 임금근로자의 상대적인 위험회피, 은퇴후 사용가능한 다른 자산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중간 수준의 위험회피, 또는 어느 정도 충분한 규모의 다른 은퇴자산의 보유, 과거 주식과 채권 수익률은 보수적인 전략보다 전체주식 투자배분전략의 기대 효용을 높이는 영향이 나타났다.

여운경(2007)과 여운경 등(2007)은 노후 대비를 위해 축적한 자산의 적정성을 연구하였다. 여운경 등(2007)에서는 20-50대 비은퇴자 가구주 취업 부부 가계를 대상으로 은퇴 대비 자산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지하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충분성을 조사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34%는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약 66%는 은퇴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고,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부채 유무, 소득, 부동산 자산, 예상은퇴연령, 개인적 은퇴준비 여부로 나타났다. 즉, 부채가 없는 가계, 소득과 부동산자산 총액에 높을수록, 개인적 은퇴준비를 실행하는 가계, 예상은퇴연령이 50대 후반인 경우 주관적 충분성을 인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운경(2007)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에 걸쳐 각기 다른 연도에 수집된 118개 가계의 자산보유 사례를 분석하여 중산층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은퇴자산의 적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적정한 은퇴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포트폴리오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형과 저축형 포트폴리오는 감소하고, 투자형은 증가하였는데, 포트폴리오 유형과 은퇴자산 적정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형의 경우 은퇴자산이 적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연도별 분석한 사례수가 2002년 13개, 2003년 36개, 2004년 40개, 2005년 29개로 매우 적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노후 대비 자산 규모는 박진영과 박선미(2006)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박진영과 박선미(2006)는 2003년 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1125 가구를 추출하여 적정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투자 자산 규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투자자산은 가계의 금융자산과 주거용 부동산 외 보유 부동산의 현재시장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이 연구에서 최저 수준의 노후생활 유지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은 평균 83.5만원,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월평균 111.8만원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151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계의 투자자산 규모는 평균 3억 333만 원, 적정생활 필요 소득이 111-150만 원인 가계의 투자자산 규모는 1억 7952만 원, 71-110만 원대 가계의 경우 1억 1935만 원, 10-70만 원대 가계에서는 6512만 원으로 나타났다.

Scholz 등(2006)은 생애주기 이론에 근거하여 미국의 가계에서 은퇴를 위해 최적의 저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은퇴 자산 축적이 최적 목표치 보다 작은 가계는 20% 미만에 불과하고 저축 미달량도 그 규모가 작음을 보여주고 있다. Li 등(1996)은 적정한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필요한 노후자금과 현재의 소득수준과 은퇴시점을 고려하여 은퇴시점에서 예상되는 은퇴자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적정 은퇴자금 보유 여부를 도출하였는데, 보유자산규모, 소득수준, 직업유형, 연령, 계획된 은퇴연령 등이 적정 은퇴자금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노후대비여부와 이에 따른 자산 현황과 은퇴 준비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노후 대비 관련 선행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해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비은퇴 가계의 노후 대비 현황을

고찰하여보고자 한다. 노후대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노후 대비 여부별 자산보유의 차이를 고찰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후대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지출, 저축으로 분석 내용을 확장하여 노후대비 여부별로 가계의 경제상태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노후 대비의 실행과 관련된 행동 변인으로 작용하는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노후대비 여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 노후 대비에 따른 노후의 경제적 자신감을 통하여 노후 대비의 성과를 파악하여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와 하지 않는 가계의 소득, 소비, 저축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와 하지 않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3>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와 하지 않는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과 노후 경제적 자신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노후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은 무엇이며 노후대비 수단은 무엇인가?

#### 2.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 의해 조사된 2007년도 투자자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개인과 가계의 간접투자실태 및 금융기관 이용행태, 투자성향 및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과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에서 만65세까지의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층화3단계 확률비례추출법에 의거 선정된 3,5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1월 23일에서 12월26일사이에 이루어졌고, 자료수집은 웹기반조사와 대면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투자자조사의 총 대상 3,500명 중 은퇴를 했거나, 은퇴 후 소일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은퇴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2,668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4%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60대이상의 경우 74.3%, 50대는 62.3%가 노후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수, %)

		노후대비 함	노후대비 안함	전체가구
전 체		1,236 (100.0) <46.4>	1,429(100.0) <53.6>	2,668 (100.0) <100.0>
연 령	20대	296 ( 23.9) <38.0>	482 ( 33.7) <62.0>	778 ( 29.2) <100.0>
	30대	349 ( 28.2) <45.0>	426 ( 29.8) <55.0>	775 ( 29.0) <100.0>
	40대	326 ( 26.3) <46.6>	373 ( 26.1) <53.4>	699 ( 26.2) <100.0>
	50대	213 ( 17.2) <62.3>	129 ( 9.0) <37.7>	342 ( 12.8) <100.0>
	60대 이상	55 ( 4.4) <74.3>	19 ( 1.3) <25.7>	74 ( 2.8) <100.0>
성 별	남	759 ( 61.3) <48.7>	840 ( 58.8) <53.9>	1,559 ( 59.9)<100.0>
	여	480 ( 38.7) <44.9>	589 ( 41.2) <55.1>	1,069 ( 40.1)<100.0>
직 업	전문·관리·사무직임금근로	638 ( 51.5) <46.8>	726 ( 50.8) <53.2>	1,364 ( 51.1)<100.0>
	기술·서비스·생산직 임금근로	255 ( 20.6) <40.7>	371 ( 26.0) <59.3>	626 ( 23.5)<100.0>
	판매·생산직자영업	220 ( 17.8) <54.7>	182 ( 12.7) <45.3>	402 ( 15.1)<100.0>
	전문직자영업	42 ( 3.4) <44.7>	52 ( 3.6) <55.3>	94 ( 3.5)<100.0>
	무직(주부포함)	37 ( 3.0) <53.6>	32 ( 2.2) <46.4>	69 ( 2.6)<100.0>
	기 타	47 ( 3.8) <41.6>	66 ( 4.6) <58.4>	113 ( 4.2)<100.0>
자녀유무	유	761 ( 61.4) <51.3>	722 ( 50.5) <48.7>	1,483 ( 55.6)<100.0>
	무	478 ( 38.6) <40.3>	707 ( 49.5) <59.7>	1,185 ( 44.4)<100.0>
학 령	중졸 이하	26 ( 2.1) <60.5>	17 ( 1.2) <39.5>	43 ( 1.6)<100.0>
	고졸 이하	212 ( 17.1) <42.5>	287 ( 20.1) <57.5>	499 ( 18.7)<100.0>
	전문대졸 이하	228 ( 18.4) <40.8>	331 ( 23.2) <59.2>	559 ( 21.0)<100.0>
	대졸 이하	575 ( 46.4) <46.6>	658 ( 46.0) <53.4>	1,233 ( 46.2)<100.0>
	대학원재학 이상	198 ( 16.0) <59.3>	136 ( 9.5) <40.7>	334 ( 12.5)<100.0>
주거상태	자 가	846 ( 68.3) <51.9>	783 ( 54.8) <48.1>	1,629 ( 61.1)<100.0>
	전 세	294 ( 23.7) <43.2>	387 ( 27.1) <56.8>	681 ( 25.5)<100.0>
	월 세	58 ( 4.7) <24.0>	184 ( 12.9) <76.0>	242 ( 9.1)<100.0>
	무상거주	41 ( 3.3) <35.3>	75 ( 5.2) <64.7>	116 ( 4.3)<100.0>

### 3. 분석방법

노후 대비 가계와 비대비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 저축, 자산 및 부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중앙값을 산출하였고, 양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후 비대비 가계의 자료 값 대비 노후 대비 자료 값의 비율을 검토하고, t검정을 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어있는 재무관리 행동과 재무상담 요구도, 노후경제적 자신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대비 가계와 비대비 가계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집단간 차이검증을 위해 t값을 산출하였다. 노후대비 가계와 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후대비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소득·소비지출·저축 현황

<표 2>는 노후대비 여부별 연평균 가계소득을 나타내 것이다.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계의 연간 소득은 평균 9,752만원

(중앙값 6,000만원)으로서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의 연평균 소득 5,492만원(중앙값 3,900만원)보다 1.78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소득 구성에서도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경우 근로소득이외에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가계의 비율이 보다 높다. 특히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의 27.7% 정도가 재산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데에 비해 노후대비를 하는 경우는 약 43.7%는 재산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근로소득 수준은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의 1.38배의 차이가 나지만 다른 소득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비지출 수준도 높았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507.3만원으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 364.6만원의 1.39배였다(<표 3> 참조).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는 의식주관련 기본생활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출 수준이 큰 항목은 월저축액, 월보험료 불입액, 부채상환비, 자녀교육비순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는 의식주관련 기본생활비, 월저축액

<표 2> 노후대비 여부별 연평균 가계소득

소득구분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합				소득액 평균 t-test	(a)/(b)
	보유율(%)	평균(a)(만원)	구성비(%)	중앙값(만원)	보유율(%)	평균(b)(만원)	구성비(%)	중앙값(만원)		
근로소득	91.0	4,591	47.1	4,000	90.1	3,323	60.5	3,000	10.844***	1.38
재산소득	43.7	1,734	17.8	0	27.7	725	13.2	0	4.469***	2.39
이전소득	13.4	525	5.4	0	8.7	153	2.8	0	2.758**	3.43
사업소득	29.6	1,968	20.2	0	19.9	918	16.7	0	6.636***	2.14
기타소득	24.9	935	9.6	0	16.2	373	6.8	0	3.587***	2.51
총소득	95.1	9,752	100.0	6,000	93.6	5,492	100.0	3,900	8.386***	1.78

\*p<.05, \*\*p<.01, \*\*\*p<.001

<표 3> 노후대비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소비지출 비목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합		소비지출금액 t-test	(a)/(b)
	금액(만원)(a)	구성비(%)	금액(만원)(b)	구성비(%)		
의식주관련기본생활비	99.8	19.7	83.2	22.8	5.720***	1.20
월저축액	97.6	19.2	60.0	16.5	11.709***	1.63
월 보험 불입액	49.0	9.7	30.8	8.4	9.684***	1.59
부채상환비	42.6	8.4	33.3	9.1	3.762***	1.28
각종 세금	28.7	5.7	21.2	5.8	5.073***	1.35
기부금	10.6	2.1	5.8	1.6	3.751***	1.83
가구원 용돈	35.5	7.0	25.5	7.0	6.523***	1.39
자녀양육 및 교육비	41.5	8.2	29.7	8.1	5.611***	1.40
사적 보조금	13.3	2.6	8.4	2.3	6.008***	1.58
교통비	25.0	4.9	19.6	5.4	5.938***	1.28
통신비	14.0	2.8	12.4	3.4	3.293**	1.13
여가비	14.6	2.9	10.2	2.8	6.848***	1.43
경조사비	12.7	2.5	8.1	2.2	7.008***	1.57
보건 의료비	8.4	1.7	5.8	1.6	4.903***	1.45
기타 소비지출	14.0	2.8	10.7	2.9	5.091***	1.31
총소비지출	507.3	100.0	364.6	100.0	11.799 ***	1.39
평균소비성향	62.4%		79.7%			

\*p<.05, \*\*p<.01, \*\*\*p<.001

<표 4> 노후대비 여부별 적립식 저축금액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합			저축액 t-test	(a)/(b)
	보유율(%)	평균(a)(만원)	구성비(%)	보유율(%)	평균(b)(만원)	구성비(%)		
적금	45.8	29.5	27.4	44.4	18.9	35.9	5.268***	1.56
적립식 펀드	63.5	53.9	50.0	50.5	23.2	44.0	7.083***	2.32
노후저축	76.3	24.4	22.7	48.8	10.5	19.9	11.809***	2.32
개인연금저축	28.8	7.4	6.9	17.9	3.8	7.2	5.379***	1.95
개인연금보험	46.2	10.5	9.7	28.5	4.8	9.1	8.609***	2.19
개인연금펀드	8.6	3.1	2.9	2.8	0.5	0.9	5.950***	6.20
직장공제회	17	3.4	12.8	9.2	1.5	2.8	5.747***	2.27
전체 적립식 저축	94.4	107.7	100.0	84.7	52.7	100.0	10.503***	2.04
소득대비 저축비		0.13			0.12			

\*p<.05, \*\*p<.01, \*\*\*p<.001

다음으로 부채상환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월평균 부채상환액은 약 33만원 수준이다. 이는 부채상환이 노후대비에 중요

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출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월저축액, 월보험 불입액 비중은 각각 19.24%, 9.65%로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의 16.46%, 8.44%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외에 기부금, 사적보조금, 여가비, 경조사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의식주관련 기본생활비, 부채상환비, 교통비 등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비목의 지출 비중은 보다 낮다.

매월 적립하는 저축금액에서도 노후대비 가계와 비대비 가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표 4> 참조).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월평균 적립 저축 금액은 107.7만원으로 비대비 가계의 평균 금액 52.7만원보다 2.04배의 높은 수준이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약 76.3%가 노후저축을 하고 있고, 63.5%가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있으며, 약 46.2%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가계가 매월 일정 금액을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가계의 약 절반가량만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거나 노후저축을 하고 있고 저축금액은 노후대비 저축 수준의 약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가계에서도 개인연금펀드 가입율은 8.6%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장기적인 노후대비 방법으로 다소 공격적인 투자 대안을 선택한 경우는 드물다.

2.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1)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금액은 평균 1억 6,400만원, 중앙값 6,700만원, 비대비 가계는 평균 6,100만원, 중앙값 2,600만원으로 나타나서, 노후대비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금액은 비대비 가계의 2.61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실물자산도 노후대비 가계의 평균 보유 수준은 약 4억 2,500만원(중앙값 2억 2,600만원)으로 비대비가계 평균 2억 2,645만원(중앙값 1억 2,000만원)에 비해 약 1.88배였다(<표 5> 참조).

<표 6>은 노후대비 여부별로 세부적인 자산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노후대비가계는 비대비가계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자산의 구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펀드, 거치식간접투자자산 등 고수익고

위험자산보유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은퇴자산의 규모가 비대비가계에 비해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고수익고위험상품에의 투자가 안정적 자금공급을 가장 중시해야하는 노후자금운용 방법으로 적당한가, 노후자금으로 몇 %까지가 적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안정적 노후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부동산자산의 경우 노후대비가계는 평균 1억 4천만원대로 5,000만원대의 비대비가계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안전유통자산, 투지자산, 은퇴자산,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 순사용실물자산, 기타 부동산 자산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노후대비 가계와 비대비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7> 참조), 두 유형 가계 모두 순사용부동산자산이 전체 자산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이 큰 자산 항목은 기타 실물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가계는 평균적으로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주로 안전유통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었고, 이 둘 가운데 안전자산의 비중이 보다 크다. 은퇴자산과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노후대비 가계와 비대비 가계의 자산 보유 면에서의 주된 차이는 노후대비 가계에서는 비대비 가계에 비해 순사용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보다 낮고 대신 다른 실물자산에 보다 많은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유통자산과 투자자산 등 다른 금융자산의 비중도 노후대비 가계에서 보다 높다.

부채 보유율은 노후대비를 안 한다는 가계의 경우 69.6%로 노후 대비 가계의 부채보유율 64.2%보다 약간 높다. 특히 할부 및 외상 등 소비성 부채 보유율은 노후대비 가계 38.7%, 노후 비대비 가계에서 47.0%로서 노후 비대비 가계가 8.3% points 가량 높게 나타났다.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노후대비 가계는 평균 약 5215만원, 비대비 가계 평균 약 3,880만원으로 노후대비가계의 부채 수준이 보다 높았다. 부채 유형별로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주택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표 5> 노후대비 여부별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자산구분	노후대비 함			노후대비 안함			평균금액 t-test	(a)/(b)
	평균(a)(만원)	구성비(%)	중앙값(만원)	평균(b)(만원)	구성비(%)	중앙값(만원)		
금융자산 (1)	16,405.7	27.8	6,780.0	6,140.7	21.3	2,600.0	10.290***	2.61
실물자산 (2)	42,537.3	72.2	22,600.0	22,645.1	78.7	12,000.0	8.933***	1.88
총자산 (1)+(2)	58,943.1	100.0	33,750.0	28,785.8	100.0	17,000.0	10.970***	1.99
총대출 (3)	5,214.9		500.0	3,879.8		500.0	2.754**	1.00
순자산 (1)+(2)-(3)	53,728.2		29,550.0	24,906.0		14,000.0	10.865***	2.11

\*p<.05, \*\*p<.01, \*\*\*p<.001

<표 6> 노후대비 여부별 자산구성

자산 구분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 함				평균금액 t-test	(a)/(b)	
	보유율 (%)	평균(a) (만원)	구성비 (%)	중앙값 (만원)	보유율 (%)	평균(b) (만원)	구성비 (%)	중앙값 (만원)			
안전 유동 자산	보통예금 등	92.8	3,916.9	6.65	1,000.0	95.7	1,767.6	6.14	500.0	8.834***	2.22
	MMF 등	13.1	353.4	0.60	0.0	7.7	62.5	0.22	0.0	4.305***	5.65
	CMA&MMDA	30.1	492.7	0.84	0.0	25.8	221.3	0.77	0.0	4.318***	2.23
	적립식적금	46.0	1,464.3	2.48	0.0	44.4	643.4	2.23	0.0	6.629***	2.28
	각종예금	43.3	1,687.7	2.86	0.0	45.7	404.0	1.40	0.0	5.529***	4.18
금융 자산	직접투자자산	27.2	1,508.1	2.56	0.0	23.4	658.8	2.29	0.0	4.261***	2.29
	간접투자 자산	65.5	2,653.1	4.50	250.0	52.1	890.7	3.10	20.0	3.409**	2.98
	적립식 거치식	47.9	1,845.7	3.13	0.0	32.3	456.8	1.59	0.0	7.747***	4.04
은퇴 자산	개인연금저축	28.8	472.6	0.80	0.0	17.9	169.9	0.59	0.0	6.100***	2.78
	개인연금보험	46.2	612.1	1.04	0.0	28.5	218.9	0.76	0.0	8.799***	2.80
	개인연금펀드	8.6	83.2	0.14	0.0	2.8	10.4	0.03	0.0	3.921***	8.00
	직장공제회	16.9	556.0	0.94	0.0	9.2	152.2	0.53	0.0	6.347***	3.65
	부동산관련자산 <sup>a</sup>	12.4	760.0	1.29	0.0	8.9	484.2	1.68	0.0	2.368*	1.57
실물 자산	순사용자산 <sup>b</sup>	95.8	23,774.5	40.34	15,000.0	92.9	15,697.9	54.53	10,000.0	8.795***	1.51
	순부동산자산	53.7	14,218.5	24.12	0.0	44.0	5,070.7	17.62	0.0	5.557***	2.80
	기타실물자산	81.6	4,544.3	7.71	1,100.0	74.0	1,876.6	6.52	500.0	6.037***	2.42
	총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99.9	58,943.1	100.0	33,750.0	100.0	28,785.8	100.0	17,000.0	10.970***	2.05

\*p<.05, \*\*p<.01, \*\*\*p<.001

<sup>a</sup>전세, 월세 보증금

<sup>b</sup>거주하는 자가주택시가에서 내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제외

<표 7> 노후대비 여부별 자산구성 포트폴리오

(단위: %)

자산 구분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함	
금융자산	안전유동자산	13.4	10.7
	투자자산	10.2	7.0
	은퇴자산	2.9	1.9
	부동산관련자산	1.3	1.7
	<b>금융자산합계</b>	<b>27.8</b>	<b>21.3</b>
실물자산	순사용자산	40.3	54.5
	기타 실물자산	31.8	24.1
	<b>실물자산 합계</b>	<b>72.2</b>	<b>78.7</b>
전 체	100.0	100.0	

<표 8> 노후대비 여부별 부채보유 현황

부채구분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함			평균금액 t-test	(a)/(b)
	보유율(%)	평균(a)(만원)	구성비(%)	보유율(%)	평균(b)(만원)	구성비(%)		
담보대출	40.8	3,584.5	68.7	39.1	2,553.7	65.8	2.857**	1.40
신용대출	26.4	956.3	18.3	28.1	676.4	17.4	2.107*	1.41
합부나 외상	38.7	674.1	12.9	47.0	649.7	16.8	0.186	1.04
총대출	64.2	5,214.9	100.0	69.6	3,879.8	100.0	2.754**	1.34
(주택관련대출)	29.4	2,531.7	48.6	27.7	2,135.1	55.0	-1.497	1.19

\*p<.05, \*\*p<.01, \*\*\*p<.001



<표 9> 연령대별 가구의 노후대비 여부별 자산구성 포트폴리오

자산구분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함			평균금액 t-test	(a)/(b)
	보유율(%)	보유액(만원)		보유율(%)	보유액(만원)			
		평균(a)	중앙값		평균(b)	중앙값		
<b>&lt;20대 가구&gt;</b>								
소득	87.2	4,536.6	2,675.0	87.8	3,042.7	2,300.0	3.129**	1.49
소비지출	99.7	284.3	223.5	100.0	235.0	195.0	3.211**	1.21
평균소비성향		0.75			0.93			0.81
금융자산 (1)	100.0	9,963.5	3,077.5	100.0	3,433.7	1,475.0	2.930**	2.90
실물자산 (2)	97.3	29,890.0	10,550.0	95.0	21,020.9	8,640.0	1.940	1.42
총자산 (1)+(2)	100.0	39,853.5	16,597.5	100.0	24,454.5	11,350.0	2.872**	1.63
총대출 (3)	53.7	1,201.2	20.0	59.1	1,269.7	50.0	-0.247	0.95
순자산 (1)+(2)-(3)	100.0	38,652.4	15,100.0	100.0	23,184.8	10,190.0	2.896**	1.67
<b>&lt;30대 가구&gt;</b>								
소득	97.1	7,921.6	5,040.0	97.2	5,093.5	4,000.0	3.449**	1.56
소비지출	100.0	456.9	403.0	100.0	360.5	321.0	5.019***	1.27
평균소비성향		0.69			0.85			0.81
금융자산 (1)	100.0	11,865.3	6,000.0	100.0	5,492.0	2,500.0	4.624***	2.16
실물자산 (2)	99.1	28,534.1	15,800.0	97.2	18,394.3	10,200.0	3.194**	1.55
총자산 (1)+(2)	100.0	40,399.4	26,626.0	100.0	23,886.3	14,687.0	4.002***	1.69
총대출 (3)	70.5	5,034.0	1,200.0	73.9	3,662.4	1,025.5	1.828	1.37
순자산 (1)+(2)-(3)	100.0	35,365.4	21,598.0	99.8	20,223.9	11,837.5	3.859***	1.75
<b>&lt;40대 가구&gt;</b>								
소득	97.5	13,961.4	8,000.0	95.7	8,065.0	5,800.0	4.278***	1.73
소비지출	100.0	680.2	560.0	100.0	489.6	455.0	7.298***	1.39
평균소비성향		0.58			0.73			0.80
금융자산 (1)	100.0	23,583.6	11,554.5	100.0	9,353.0	4,500.0	6.339***	2.52
실물자산 (2)	99.4	51,192.9	29,200.0	98.1	25,055.0	16,300.0	6.214***	2.04
총자산 (1)+(2)	100.0	74,776.6	44,857.0	100.0	34,408.0	24,370.0	7.240***	2.17
총대출 (3)	71.8	8,425.0	2,000.0	76.1	6,300.6	2,000.0	1.467	1.34
순자산(1)+(2)-(3)	100.0	66,351.6	39,570.0	100.0	28,107.4	19,230.0	7.225***	2.36
<b>&lt;50대 가구&gt;</b>								
소득	97.7	14,220.1	10,000.0	96.9	8,660.6	6,600.0	4.210***	1.64
소비지출	100.0	672.1	608.0	100.0	509.5	475.0	5.163***	1.32
평균소비성향		0.57			0.71			0.80
금융자산 (1)	100.0	23,248.5	13,724.0	100.0	9,608.8	5,600.0	5.413***	2.42
실물자산 (2)	100.0	64,753.4	38,500.0	98.4	35,168.8	24,670.0	4.635***	1.84
총자산 (1)+(2)	100.0	88,001.9	53,610.0	100.0	44,777.6	34,596.0	5.715***	1.97
총대출 (3)	65.7	6,890.2	1,600.0	79.8	7,340.9	3,950.0	-0.347	0.94
순자산 (1)+(2)-(3)	100.0	81,111.7	46,970.0	100.0	37,436.7	30,095.0	5.895***	2.17
<b>&lt;60대 가구&gt;</b>								
소득	100.0	7,186.1	4,330.0	100.0	4,507.1	2,400.0	1.202	1.59
소비지출	100.0	365.8	325.0	100.0	308.5	185.0	0.759	1.19
평균소비성향		0.61			0.82			0.74
금융자산 (1)	98.2	10,841.7	4,800.0	94.7	2,747.9	1,650.0	3.313 **	3.95
실물자산 (2)	98.2	62,119.5	32,000.0	100.0	26,820.0	15,400.0	1.633	2.32
총자산 (1)+(2)	98.2	72,961.2	39,000.0	100.0	29,567.9	16,800.0	1.821	2.47
총대출 (3)	29.1	2,449.6	0.0	42.1	3,942.1	0.0	-0.736	0.62
순자산 (1)+(2)-(3)	98.2	70,511.6	38,200.0	100.0	25,625.8	16,800.0	2.861 **	2.75

\*p<.05, \*\*p<.01, \*\*\*p<.001

<표 10> 연령대별 노후대비 여부별 평균소비성향과 자산포트폴리오

구 분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균소비성향 자산포트폴리오(%)	0.75	0.69	0.58	0.57	0.61	0.93	0.85	0.73	0.71	0.82
금융자산	25.00	29.37	31.54	26.42	14.86	14.04	22.99	27.18	21.46	9.29
실물자산	75.00	70.63	68.46	73.58	85.14	85.96	77.01	72.82	78.54	90.71
총자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100.00	100.00	100.00	100.00
총대출/총자산	3.01	12.46	11.27	7.83	3.36	5.19	15.33	18.31	16.39	13.33

\*p<.05, \*\*p<.01, \*\*\*p<.001

2) 연령대별 자산 부채 현황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자산구성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내용이 <표 9>에 나타나 있다. 연령대별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계와 하지 않는 가계 사이에 소득과 자산 보유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 검토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수준과 자산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부채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가계가 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자산 보유 수준은 50대 이후부터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월등히 높다. 이 두 유형 가계 사이의 자산보유 수준의 차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노후 비대비 가계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대비가계의 평균소득 배율은 20대에 1.49, 30대 1.56, 40대 1.73으로 나타나 40대까지 양 유형 가계간의 소득의 차이가 가장 크고 50대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소득에 비하면 지출의 차이는 다소 작은데, 40대까지 차이가 확대되나, 50대부터 차이가 감소하였다. 순자산 규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30대까지는 노후 비대비 가계의 평균 자산 보유 수준 대비 노후 대비 가계의 수준의 배율이 2배에 못 미치고 있으나 40대부터는 2배 이상 차이 나고 60대 부터는 그 배율이 약 2.75 정도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에 따른 추이의 변화는 시계열적인 추이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며, 연령대별 동시대효과(cohort 효과)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를 바로 앞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60대의 자산보유 수준은 은퇴 준비 여부의 평가에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후 대비를 한다고 응답한 60대 이후의 노인 가계의 약 50% 이상이 3억 8,200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보유금액은 약 7억511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60대 이후 가계의 약 50% 정도는 1억 6,800만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순자산 규모는 약 2억 5,62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0>에 연령대별 노후대비 여부별 평균소비성향과 자산 포트폴리오가 정리되어 있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평균소

비성향은 20대에 0.75로 가장 높고, 50대에 0.57로 평균소비성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축 여력이 있다. 이에 반해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는 20대 가계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0.93으로 나타나 저축 여력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50대에도 0.71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노후 대비를 하는 가계와 하지 않는 가계 모두 40대까지 금융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50대와 60대에서 그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연령대의 변화에 따른 결과인지, 50대 이후 연령층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대효과인지 향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로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는 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보다 높고, 총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낮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의 총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50대, 60대 가계에서 각각 약 16.39%, 13.33%인데,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수준과 비교하면 50대 가계는 약 2배 정도, 60대 가계는 약 4배 정도로 부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운경(2007)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부채부담은 노후대비를 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후대비 여부별 재무관리 행동과 노후 경제적 자신감

1) 노후대비 여부별 재무관리 행동

노후대비 여부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여 보았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무관리행동 수행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가 하지 않는 가계보다 모든 재무행동 항목의 실행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에서는 11개 항목 가운데 비상금 준비와 금전출납부 기입을 제외한 9개 항목의 재무관리 행동 점수가 3점 이상으로서 거의 모든 재무관리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데 반해,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에서 3점 이상의 실행점수를 보이는 항목은 자산 상태 및 가계수지 상태의 파악과 보험 가입의 3개 항목에 불과하고 이외의 재무행동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노후대비 여부별 재무관리행동 점수:평균 (순위)

항 목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함	t-test
우리 집 또는 나의 소득이 얼마나 되고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다.	3.45 ( 2)	3.28 ( 2)	7.255***
우리 집 또는 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3.47 ( 1)	3.29 ( 1)	7.512***
우리 집 또는 나의 장단기 재무목표를 세운다.	3.07 ( 7)	2.59 ( 9)	16.853***
저축이나 투자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구한다.	3.21 ( 4)	2.90 ( 5)	11.424***
가능하면 계획한 대로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3.14 ( 6)	2.93 ( 4)	8.210***
정기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3.15 ( 5)	2.81 ( 7)	11.795***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3.35 ( 3)	3.11 ( 3)	7.828***
비상금을 준비해 두었다.	2.86 (10)	2.43 (10)	14.764***
신용카드나 빚은 계획에 따라 이용한다.	3.02 ( 9)	2.85 ( 6)	5.968***
가계부나 금전 출납부를 쓴다.	2.45 (11)	2.25 (11)	5.510***
정기적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점검한다.	3.03 ( 8)	2.71 ( 8)	11.388***

\*p<.05, \*\*p<.01, \*\*\*p<.001

<표 12> 노후대비 여부별 재무상담 의향 점수(평균)

항 목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함	t-test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방법	2.91 ( 6)	3.02 ( 5)	-3.522***
펀드 등의 간접투자 방법	3.18 ( 1)	3.21 ( 1)	-0.914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 방법	3.07 ( 4)	3.03 ( 4)	1.242
대출, 상환 및 개인 신용관리 방법	2.70 (11)	2.83 ( 9)	-3.989***
절세 방법	3.02 ( 5)	3.00 ( 6)	0.402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방법	2.78 ( 9)	2.72 (10)	1.924
노후설계 방법	3.12 ( 2)	3.06 ( 3)	1.993*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및 운용 방법	2.84 ( 7)	2.89 ( 8)	-1.367
주택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방법	3.11 ( 3)	3.17 ( 2)	-2.056*
소득 및 생활비 관리 방법	2.80 ( 8)	2.90 ( 7)	-3.246**
상속이나 증여 방법	2.77 (10)	2.67 (11)	3.113**

\*p<.05, \*\*p<.01, \*\*\*p<.001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와 하지 않는 가계에서 공통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재무행동은 재산 및 부채의 자산상태 파악과, 소득과 지출의 파악, 보험 가입이었다. 그 다음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가계에서는 저축이나 투자 방법과 정기적인 저축 및 투자 행동 점수가 높다.

재무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장단기 재무 목표 수립과 지출 관리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재무목표 수립은 노후 설계나 재무관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재무관리에서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실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무목표 달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무 목표 달성 평가 기준으로서 뚜렷한 재무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필요한 재무관리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1가지 재무관리 항목의 재무상담 의향을 살펴본 결과(<표 12> 참조),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에서는 5가지 항목,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에서는 6가지 항목의 상담 의향 점수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통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펀드 등의 간접투자 방법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유형의 가계에서 요구도 점수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노후설계 방법, 부동산 투자방법, 증권의 직접투자 방법, 절세 방법 등 재무관리 실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재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에서 투자와 저축방법에는 상담의향이 높은 편이나, 가계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는 관리 및 설계 등 기초적인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관심 수준이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포착되고 있다.

2) 노후대비 여부별 노후 경제적 자신감

노후대비 여부에 따라 노후의 경제적 자신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매우 확실하다 4점, 어느 정도 확실하다 3점, 약간 불확실하다 2점, 매우 불확실하다 1점),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가 하지 않는 가계보다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지만, 자신이 있는 수준(3점)에 도달한 항목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자신감 수준은 높지 않고, 노후 준비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노후대비 여부별 노후 경제적 자신감

노후 경제적 자신감	노후대비 합	노후대비 안합	t-test
나는 은퇴에 대비해 재정적인 준비를 잘 해 놓을 것이다	2.754	2.195	18.629***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은퇴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2.538	2.004	17.448***
나는 은퇴기 동안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654	2.137	16.378***
나는 은퇴기 동안 나와 배우자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650	2.155	16.436***
나는 은퇴기 동안 필요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나 간병 서비스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427	1.953	15.304***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후를 대비하는 가계는 은퇴에 대비해 경제적인 준비를 잘 해놓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실하지만(평균 2.75점), 기초적인 생활 유지와 의료비 감당 정도 수준의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2.65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생의 은퇴자금 준비와 가사도우미나 간병서비스 등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노후 경제적 대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모든 항목에 대해 자신감 점수가 2점 정도로 낮고, 은퇴에 대비해 재정적인 준비를 잘 해 놓으리라는 은퇴준비 자체에 대해 경제적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4. 노후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과 노후대비 방법**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계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대비 여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로짓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표 14> 참조). 모델1은 가계특성만을 포함하였고, 모델2는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특성변수를 포함하였다. 모델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령과 주거 보유 유형, 상속가능성 등 세 요인이 가계의 노후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50대와 60대에 노후대비를 할 확률이 보다 높았고, 자가로 보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노후대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 향후 상속을 기대하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나 자가여부가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던 차경욱 등(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모델2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계소득과 자산수준은 가계의 노후대비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노후대비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채보유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이 노후대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변수를 조절하였을 때, 전문직 자영업 가계는 임금근로자가계에 비해 노후대비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직 자영업의 경우 은퇴예상연령이 타직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대비를 등한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득과 자산수준 등 여타 가계특성이 동일할 때, 60대가구와 전세가구는 20대가구와 자가가구에 비해 노후대비가계에 속할 확률에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노후 대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금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지,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표 15> 참조).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노후 경제 대비 수단으로서 가계의 약 37.8%가 국민연금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항목은 개인연금으로서 약 20.6%를 차지한다. 1, 2, 3순위 분포를 고찰한 결과,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공적연금, 개인연금, 펀드 간접투자, 보험 또는 예적금 가입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사용 빈도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은 3층 체계(3 pillar system)로 이루어지는데, 1층은 가장 기초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의한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준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2층, 3층의 소득보장 장치를 통해 노후 필요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2층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개인 자산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 결과 노후 대비를 하는 경우 1층과 3층 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퇴직금이나 기업연금 등의 2층 수단의 의존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3층 개인자산 적립 수단 가운데에서는 개인연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펀드 가입을 통한 공격적인 자산증식 방법을 통하여 노후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로서 노후대비를 할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약 29.1%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노후준비를 하기에 이르러는 다소 여유 있는 응답이 약 19.5%를 차지한다(<표 16> 참조).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2%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노후대비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4> 노후대비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기준 범주: 노후대비 안함)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 수	-0.610	0.407	-0.466	0.477
연령(20대)	30대	0.165	0.123	0.068
	40대	0.171	0.153	-0.194
	50대	0.765***	0.179	0.332*
	60대 이상	1.530*	0.344	0.817
성별(남)	여	-0.016	0.086	0.028
직업(전문·관리·사무직임금근로)	기술·서비스·생산직 임금근로	-0.178	0.104	-0.187
	판매생산직 자영업	0.132	0.125	0.046
	전문직 자영업	-0.325	0.225	-0.554*
	무직(주부포함)	0.241	0.262	-0.003
	기 타	-0.127	0.208	-0.003
자녀유무(무)	유	0.043	0.120	0.138
학력(중졸이하)	고졸 이하	0.137	0.388	-0.170
	전문대졸 이하	0.140	0.395	-0.154
	대졸 이하	0.325	0.389	-0.076
	대학원재학 이상	0.753	0.403	0.258
주거유형(자가)	전 세	-0.232**	0.095	-0.158
	월 세	-0.999***	0.165	-0.789***
	무상거주	-0.547**	0.206	-0.387
상속가능성(없음)	있 음	0.224**	0.083	0.160
가계소득			0.00002**	0.000007
금융자산			0.00003***	0.000004
실물자산			0.000003**	0.000001
부채여부	있 음		-0.235*	0.093
Chi-square	163.813		326.180	
-2 Log likelihood	3454.465		3292.097	
Cox & Snell R Square	0.061		0.117	

변수(괄호): 기준범주, \* p<0.05, \*\* p<0.01, \*\*\* p<0.001

<표 15>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수단

	노후대비 함		
	1순위	2순위	3순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	468(37.8)	152(12.3)	142(11.5)
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	255(20.6)	290(23.4)	99(8.0)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적립	66(5.3)	124(10.0)	103(8.4)
펀드 등에 간접투자	123(9.9)	207(16.7)	212(17.2)
각종 보험 상품 가입	83(6.7)	173(14.0)	211(7.1)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	40(3.2)	51(4.1)	72(5.8)
예금, 적금 가입	89(7.2)	154(12.4)	202(16.4)
부동산 운용	107(8.6)	75(6.1)	149(12.1)
기 타	8(0.6)	12(1.0)	43(3.5)
전 체	1,239(100.0)	1,238(100.0)	1,233(100.0)

<표 16> 은퇴준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229 ( 8.6)
생활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547 (20.5)
자녀들에게 노후를 맡길 수 있어서	7 ( 0.3)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8 ( 2.2)
아직 이른 감이 있어서	462 (17.3)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126 ( 4.7)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07 간접투자자 조사 자료를 통하여 노후대비 여부별로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 현황, 그리고 재무관리 행동 수행 정도와 재무상담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고, 노후대비 여부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후 대비 수단, 노후대비 여부별 노후의 경제적 자신감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분석대상인 은퇴 전 가구 중 약 46.4%는 노후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이상(53.6%)은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노후의 경제적 대비에 대한 인식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50대 이전에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인식 제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노후 대비가 재무관리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주택 마련 다음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후를 대비하는 가계는 대비하지 않는 가계보다 소득, 소비지출, 저축, 금융자산, 실물자산 보유 수준이 높으나, 부채 보유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연간 소득은 평균 9,752만원으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가계의 연평균 소득 5,492만원의 1.78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가계는 의식주관련 기본생활비와 부채상환 등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지출을 주로 하고 있어서 노후 대비를 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다소 여유가 없는 경제 상태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노후 설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노후 비대비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은 높은 편이며, 50~60대 이후까지 부채 부담이 있는 가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노후 비대비 가계의 노후 대비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후 대비를 하는 가계는 저축성향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은퇴 후 경제적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 금융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 가계는 주로 적립식 펀드와 노후 저축 수단을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율이 저조한 개인연금펀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연령대별로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는데, 향후 적극적 노후 대비 수요층인 40대는 50대와 60대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비율이 높아서,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 세대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노후 대비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주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 2가지 유형의 자산 비중이 매우 높는데,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 은퇴자산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가계는 노후 경제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낮으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가계도 노후의 경제 상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대비 가계의 소득수준과 자산 보유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재무관리 행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피드백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 가구의 노후 필요 생활자금이 월평균 약 246만원으로 집계 되었고, 현재 은퇴하여 순자산 평균 7억512만원을 소비하며 산다면 약 24년 동안의 생활비 조달이 가능하다. 현재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60대에 24년 동안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감이 낮은 이유로서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다.

여섯째,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는 대비를 하는 가계에 비해 가계 재무상태가 열위에 있고 재무관리 행동 면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거나 가계부 기입이나 신용카드 관리 등 기초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경제 상태가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재무관리의 계획과 실행이 더욱 요구되며, 합리적인 재무목표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재무상태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재무목표 수립과 가계 및 신용 관리 행동 점수가 낮은 것은 가계가 재무 설계와 기초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투자기술과 자금관리 방법 등 금융 기술에 대한 정보가 금융시장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상담 수요가 큰 것과 대비를 이룬다. 따라서 재무설계 과정과 실행 방법에 대한 가계 대상 재무관리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노후의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퇴직금이나 기업연금의 2층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직장이라기보다는 퇴직 전에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령도 50세 전후로 이르기 때문에 퇴직금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인데다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가계가 50%를 넘기 때문에 이들 가계가 수월하게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정착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본 연구의 대표주제어는 노후대비여부였다. 이 변수는 '은퇴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주관적 답변인 '예'와 '아니오'를 사용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서는 노후대책을 위한 준비 여부를 물었었고, 차경욱 등(2008)의 연구는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소한 질문의 뉘앙스의 차이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답변을 할 때

내용타당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노후 경제적 대비의 충분성을 묻고 있는지, 재무설계 여부를 묻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 대비를 실행 중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주관적인 노후대비 여부에 대한 답변이 실제 그들의 객관적 노후대비 상황과 비교할 때 어떠한 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관적 노후대비 여부는 객관적 노후대비 여부가 측정할 수 없는 개인적 영향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에 지니는 반면, 상황평가에 대해 개인의 기대치나 개인의 성향 등이 반영됨으로써 때론 과대, 과소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주택마련은 노후대비보다 우선되는 재무목적이었고, 상환해야하는 부채는 노후대비를 가로막는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는 시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일생을 통한 재무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주택마련과 부채상환, 그리고 노후대비는 총체적인 재무설계를 통해서 일생에 걸친 합리적 소득분배를 통해 조절되어야 하는 재무목표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노후대비를 포괄하는 재무설계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서 재무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차원의 노후설계상담센터 운영 등 개인의 노후대비를 돕기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곽인숙 · 홍성희 · 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김성숙 · 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 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37-52.

김성숙(2008). 3층 노후소득부장의 관점에서 본 가입연금구조와 개인연금가입의 결정 요인. **제1회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8-132.

김순미(1998). 재무계획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박진영 · 박선미(2006). 노인가계가 적정소득 인지에 따른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 **2006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겨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5-92.

배문조 ·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삼성경제연구소(2008).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Issue Paper 2008.2.27.

삼성경제연구소(2007). **2007.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제96호.

삼성경제연구소(2004). **2004.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노후불안감 확산에 관한 가계의식 조사**. 72호.

성지미 · 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안종범 · 전승훈(2006). 노후 대비와 가계저축: 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분석. **공공경제**, 11(2), 123-149.

안종범 · 전승훈(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5), 5-33.

양세정 ·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여윤경(2007).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와 은퇴자산의 적정성. **경영논총**, 25(2), 59-79.

여윤경 · 정순희 · 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유민상(2008). 사교육비 지출이 노후대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형 · 이연숙(2002).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생계비 산정. **대한가정학회지**, 40(4), 139-152.

이선형(2001).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 생계비의 활용 방안. **한국노년학연구**, 10, 5-30.

이희숙(1995). 일하는 기간동안의 가계저축행태와 은퇴 후 가계 소비행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1), 41-56.

주소현(2007). 가계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소득 충분성.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논문집**, 8-15.

차경욱 · 박미연 · 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 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홍성희 · 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Ameriks, J., Caplin, A. & Leahy, J.(2003). Wealth accumulation and the propensity to pla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3), 1007-1046.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4.

Bernstein, D.(2004). Household Debt and IRAs: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15(1), 63-72.

James III, R. N. & Sharpe, D.(2007). Is Time Running Out? Savings and Investments of Renters Nearing Retirement.

- ment Ag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18(2), 61-75.
- Joo, S. H. & Pauwels, P. W.(2002). Factors Affecting Workers' Retirement Confidence: A Gender Perspectiv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13(2), 1-10.
- Kim, J., Kwan, J. & Anderson, E. A.(2005). Factors Related to Retirement Confidence: Retirement Preparation and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16(2), 1-19.
- Li, J., Montalto, C. P. & Geistfeld, L. V.(1996). Determinants of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7, 39-48.
- Poter, J., Rauh, J., Venti, S. & Wise, D.(2006). NBER Working Paper Series: Lifecycle asset allocation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401(K) retirement wealth. <http://www/nber.org/papers/w11974>
- Scholz, Z. K., Seshadri, A. & Khitatrakun, S.(2006). Are Americans Saving "Optimally" for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4), 607-643.

- 접수일 : 2008년 09월 16일
- 심사일 : 2008년 11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28일